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
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오전 11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꾸러진 선거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홍서헌 김책
공업종합대학 총장, 리성욱당위원장을
만나시였다.

경축의 춤바다로 설레이던 대학구내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우렁차
게 터져올랐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체적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
해나가시며 조국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력사의 새시대를 펼쳐시고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
를 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선거자들에게
따뜻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며 선거장
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구 제40호분구



홍서헌총장에게 투표하시였다. 인 홍서헌총장과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 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의원후보자 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김책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

본사기자

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
는 만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
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
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
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
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
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거장에서 나오
시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
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
지는 경사스러운 날 지나가나 그리며 뵈
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선거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과
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높은 뜻을 심장
에 새기고 과학기술연구와 인재양성의 자
랑찬 성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며 사회
주의 내 조국을 길이 빛내어갈 불타는 결
의를 다지였다.

중 앙 선 거 위 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보도를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
위원회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보도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
군장병들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
와 휘황한 전도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
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
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격동
적인 시기에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정
치적열의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실
시되었다.
모든 선거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미
에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

며 강용한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떨쳐
나가는 주체조선의 공민된 무한한 긍
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의 인민주권
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선거에 한사
람같이 참가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있는 선거자들은 선거에 참가하
지 못하였다.
선거결과를 종합한데 의하면 전국적
으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
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
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
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이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방
식으로 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선거자들의 절대적인 지지
와 신뢰의 표시이며 세대를 이어 지
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
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가기
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확

고부동한 신념과 열렬한 애국심의 발
현으로 된다.
전체 선거자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
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자기
의 발전행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사
회주의 우리 국가의 진면모와 양양한 전
도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공화국공민
으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드림없는 지향과 강렬한 의지를 다시한
번 뚜렷이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중앙선거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모든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선거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당선된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보
도하였다.
본사기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정권

해 외 동 포 들 의 반 향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10일 최
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
거를 위한 제10호 구구선거
구 제39호분구에서 투표하고
선거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이번 선거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
화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을 과시하는 의미깊은 계
기로 된다고 하면서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제일동포 김성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
를 바친 감격과 기쁨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국에서 뜻깊은 선거에
참가하고보니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정권을 세워주시

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모습
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을 떠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
으로서의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참다운 인민정권이 있기에
우리 제일동포들도 이역방에
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으로
존엄과 영예를 떨쳐가고있는
것이다.
제일동포 김미순은 처음으
로 선거에 참가한 소감을 이
렇게 터놓았다.
선거표를 받는 순간 눈시
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
는 애국의 한표를 바친 오늘
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일생
을 두고 잊지 않을것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

가장 참다운 인민의 주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
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기쁨
과 희열이 한껏 넘쳐있다.
이런 희한한 광경은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
이다.
조선인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성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
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온 겨레가 영
원히 안겨살 행복의 보금자
리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본사기자

인민을 정권의 주인으로 내세우시여

국가의 주인은 인민이며 국가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사회주의조선이다. 인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공화국정권을 참다운 인민의 정권으로 건설하시였다.

해방후 새 조선건설시기 북조선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 준비하던 때에 있는 일이다.

해당부분 일군들속에서는 대회개회사를 누가 하였는가하는 문제를 놓고 론의가 분분하였다. 그 책임자로는 언변이 류창한 사람이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판관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의견을 알만하다고 하시며 우리 생각과같이서는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 가운데서 지난 기간 고생을 많이 했고 광복후에는 인민정권을 받들고 성실하게 일해오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에게 개회사를 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하여 78살의 고령자로서 강동군에서 온 농민대표가 무뎠게 올랐다.

회의전날 그 로인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년세도 많으신데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다고 반갑게 맞으시고 그와 대화를 나누시였다.

강동산골에서 조상대대로 머슴살이, 소작살이를 한 집안의 태력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영원히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되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인민들에게서 선거받은 인민위원인데 인민위원이란 다른아닌 인민들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이라고, 로인님과 같이 나이 많은분도 인민위원으로 선거되니 이제 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고 하시였다.

뜻깊은 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게 된 로인은 너무도 꿈만같아 몇번이나 손으로 눈굽을 찍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실이다.

오랜 세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인민의 정권하에서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게 되였다.

공화국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정권

은 인민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주권적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였다.

어느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현지지도하시

이른새벽 일군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내의 중심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맞은편 공지를 가리키시며 거기에 고층살림집을 앉히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의 가르침대로 고층살림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설계에서 빼놓았다고 말씀올리였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무엇때문에 그렇게 했는가고 리유를 물으시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라고,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기관창사가 근로자들의 살림집보다 낮은 것이 옳아 아니라고, 정권기관창사보다 살림집이 높으면 더 좋다고 하시였다.

하여 후날 그 공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고층살림집이 건설되게 되였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판교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꾼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에 받들려 인민이 쓰고살

림집이 높이 일떠서게 되었다.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민의 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에서는 국호도 인민공화국, 정권도 인민정권, 군대도 인민군대로 되었다. 인민문화공전,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없이 건설되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을 방문한 외국의 한 문필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신적이 있다.

그때 그 문필가는 수령님께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위해서 오래 살라니 참으로 고맙다고 하시였다.

후날 그는 그 사실에 대하여 외무부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 화제에 오르면 금시 활기를 띠시는 김일성주석에게 대한 글은 마땅히 인민적인 송가로 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인민위원의 사상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과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 설

그 이 의 한 표

사랑을 안고 오시였던가
민음을 안고 오시였던가
인민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장으로
그이는 오시였다
평범한 인민의 한 성원이 되시여

그이는 인민의 령도자이시건만
자신을 인민의 총복으로 생각하시는분
인민들에게 계시기를 락으로
인민에게 멸사복무함을
자신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시는분

조국과 인민을 위해 수천여리
그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쌓이신 피로
아직도 다 풀지 못하셨으련만
그것은 다 잊으신듯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

폭풍처럼 환호하는 선거자들의 열광에
그이는 온 나라 인민들 다 만나보시는듯

인 민 의 세 상

김 영 일

홍겨운 춤바다로 설레이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장
사람들 떠들썩 웃음속에 하는 말
우리 대의원후보자 정말 훌륭하다네

나이지못한 너연은 자랑한다오
대의원후보자는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수년세월 도로를 제 집뜨락처럼
묵묵히 관리하는 그의 수고
아름다운 거리가 다 말해준다오

사람들 저저마다 터놓는 그 사연
얼마나 가슴 울리오
보도블로코 하나 드물세라
후식날도 명절날도 바친 그의 정성
오늘도 가슴 뜨겁게 적셔준다오

이른새벽에도 깊은 한밤에도

리 송 일
기쁘시여 자애로이 답례하시며
대의원후보자에게 찬성의 한표 주셨나니

그 선거표에 담으신 그이 뜻이던가
투표장을 나서시여
대의원후보자의 손 다정히 잡아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오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던 그 말씀

아, 인민의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주신
그이의 한표에는
정녕 사랑만이 깃들었던가

그이의 한표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린
사회주의 인민의 내 나라
세상만방에 더 높이 떠올리실
불같은 의지가 비졌어라

늘 도로에 구슬땀 바쳐온 너연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제일 먼저 거리로 달려나간 너연
그의 진정과 헌신을 두고
사람들 이야기는 끝이 없을듯

선거장에 이야기꽃이 피어나네
평범한 도로관리원이
국가의 정사를 논할수 있는 대의원
이러니
이런 참좋은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가 제일이라네

아, 누구나 찬성의 한표를 바칠 한마음
깊어지는 선거자들의 마음이어
진정 우리는 누구를 위해 투표하는가
인민의 나라 인민의 세상에
사람들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네

지난 3월 10일 공화국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북편의 산간마을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인민들이 숭고한 공민적자격을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사상적합,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권모술수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란무하는 자본

의 나라들에서의 선거와 달리 인민의 참다운 복부자들을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공화국에서의 선거는 명절분위

기속에서 진행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된 날도 크나큰 격정과 환희속에 울

렸다. 선거자명부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보며 선거표를

받게 될 시각을 그려보던 공민들, 《선거장》이라는 글

발앞에서 가슴울렁이며 선거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른아침부터 기쁜 마음으로 선거장을 찾아나섰다.

은 나라 방방곡곡의 선거장들마다에서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은 앞날을 위하여 성실한 피와 땀을 다 바쳐

달 나라였던 설음을 빼져 리게 체합한 백살장수자할 머니로부터 태어나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는 나이 어린 공민들...

누구나 공화국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 자기들의 행복한 삶을 보금자리인 사회주의제도를 영원히 지켜 가려는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찬성의 한표를 바치

고 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주 제40호부선거장을 찾으시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환신 미소를 지으시고 선거장에 나오신 그이의 모습을 우리리며 대학의 교직원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모두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호주 제40호부선거장을 찾으시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환신 미소를 지으시고 선거장에 나오신 그이의 모습을 우리리며 대학의 교직원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원, 학생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의 손을 꼭 잡으시고 선거장으로 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거표를 받으시고 그에게 투표하시였다.

《꿈만 같습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니까요 모시고 선거를 한 오늘이 이 영광을 잊지 않고 그이의 령도를 더

국가주권에 대한 인민의 확고한 지지

일심단결을 과시한 경사스러운 선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3월 10일 오전 10시, 온 나라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되었다.

합일의 로투사들, 전쟁로병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

낸 인민군장병들, 지난

해에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들어진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들과

질 좋은 경공업제품들,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거창한 대건설장들에서의 성과

들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잠재력과 위력을 잘 보여주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공화국의 혼연일체는 주체조선의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백성의 령도를 받들어가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가혹한 경제봉쇄와 체제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역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수 있다는 진리라고 하시였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딪칠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뚫러세우지 못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모두다 참다운 인민의 나라들,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해가는 오늘날의 현실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인민의 존엄높고 보람찬 삶은 끝없이 이어질것이며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는 참다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금 힘있게 떨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었다.

량 수 남

다함없는 흥민의 마음을 담아 민족 옷 《과야베라》

에 수직모양의 줄무늬를 장식하는데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야베라는 가슴부위와 허리부위에 주머니를 단것이 특징이며 목화나 비단실로 섬세하게 만들어 열대지방나라들에서 장중한 의식때 레복으로도 입는다고 한다.

아마직이나 합성섬유로도 만든 과야베라의 령도는 18세기 꾸바의 쌍꺼머 스페리투스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옷이름을 마을을 지나가는 야야보강의

이름을 따서 《야야베로》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옷의 설계에 여러가지 변형을 주고 《과야베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꾸바의 해방투사들은 옷의 양옆밑부분을 터쳐놓아 칼을 몸에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적이 나타나면 꺼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전쟁로병들은 그후에도 《과야베라》를 순수한 애국주의상징으로 입고 다녔다고 한다.

본사기자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만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충동일반적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고강도의 령도와 학제가 가장 합리적적으로 편성되어있는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있는 중대한 조치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다스린 외국인들은 《조선이야말로 교육의 나라》라고 격찬하고있다.

김정 송

가장 훌륭한 교육제도

여러 농촌지역의 학교들과 유격군거지의 아동단체교들이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해주고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

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해주고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

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해주고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며 전면성을 띠고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온갖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있

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해주고있는 나라가 공화국이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교육도 모두 국가의



메명철

다함없는 흥민의 마음을 담아 민족 옷 《과야베라》

에 수직모양의 줄무늬를 장식하는데 수를 놓아 장식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야베라는 가슴부위와 허리부위에 주머니를 단것이 특징이며 목화나 비단실로 섬세하게 만들어 열대지방나라들에서 장중한 의식때 레복으로도 입는다고 한다.

아마직이나 합성섬유로도 만든 과야베라의 령도는 18세기 꾸바의 쌍꺼머 스페리투스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옷이름을 마을을 지나가는 야야보강의

이름을 따서 《야야베로》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옷의 설계에 여러가지 변형을 주고 《과야베라》라고 이름을 고치게 되었다고 한다.

꾸바의 해방투사들은 옷의 양옆밑부분을 터쳐놓아 칼을 몸에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적이 나타나면 꺼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전쟁로병들은 그후에도 《과야베라》를 순수한 애국주의상징으로 입고 다녔다고 한다.

본사기자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만방에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충동일반적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고강도의 령도와 학제가 가장 합리적적으로 편성되어있는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

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있는 중대한 조치이다. 하기에 공화국을 다스린 외국인들은 《조선이야말로 교육의 나라》라고 격찬하고있다.

김정 송

조선의 국풍

매 가정에는 자기나라의 가풍이 있다.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떠한가. 그때 사람의 인격형성도 주요하게 좌우된다. 집안에 가풍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풍이 있다.

국풍이란 나라의 풍속으로서 오랜 역사적과정에 형성되어 내려오는 생활규범이나 방식을 말한다. 국풍에는 해당 나라의 역사와 전통, 민족적정신이 담겨져있을뿐 아니라 매 인간들의 인성관, 생활관 등도 반영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빛나는 국호를 가진 조선의 국풍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유하고도 우수한 국풍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과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것은 공화국의 제일가는 국풍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똘똘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전후 것처럼 어려웠던 나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엄중히 훈육하셨는데도 이제는 다 잘살지 마시라고,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넘겨주시라고, 우리는 수령님을 지지한다고 말씀올린 한 할머니의 소박한 말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일념에 불타는 온 나라 인민의 진정한 마음의 분출이었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어버이수령님을 천민듯밖에

없고 엄혹한 자연재해까지 덮쳐들었던 그때 외국의 기자들이 제해지역의 한 로인을 만나 일로 어떻게 살 작정인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그때 로인은 《큰물에 집도 없고 가산도 없이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돌보시기때문에 이제 집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더 잘살 날이 온다.》고 말해주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을 같이하며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또 한분의 위인 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굳건히 이어지고 빛을 뿌리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민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를 굽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혹되어 인민들은 우리 원수님이라 목에여 부르며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초소 일터에 찾아오시며 걱정속에 울고 웃으며 한없이 넓은 그 품에 안겨들고 떠나가실 때면 차디찬 바다물속에서도 서슴없이 뛰어들며 파라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화폭들이다.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화목한 대가정에 넘치는 미덕의 향기

은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공화국에는 가슴뜨거운 사랑과 정에 대한 이야기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진쟁로병의 친자식이 되고 청년들이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품어안아 키우는 고마운 어머니들의 소행은 이 땅에서 레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지난해 5월 평양시 형제산구역의 한 살림집에서는 만사람의 축하속에 특류영예군인인 리일혁의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성의가 깃든 결혼상을 마주한 리일혁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 시각 그에게서 제일 안락하듯 보이는 특류영예군인인 자기와 일생을 함께 할 결심을 품은 신부 김성희와 자기의 생로사를 돌봐주고 이렇듯 결혼까지 마련해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수 없는 것이었다.

몇해전 그는 군사임무수행 중 뜻밖에도 두눈을 다쳤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두눈을 대

신해주었다. 침상에서 맥을 놓을세라 매일이다싶이 달려와 힘과 용기를 안겨준 정다운 이웃들과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서성구역 림동에서 사는 주학철, 김영미부부도 있었다. 색다른 음식감이 생겨도 달려오고 건강회복에 좋은 약재를 구하기 위해 밤도 주저없이 떠나고 하며 바쳐온 그들부부의 정성은 뜨겁고도 진실해졌다.

리일혁에게 일생을 같이 할 처녀가 나타나자 결혼식 준비는 자기가 다 맡았다며 세심히 마음쓰던 주학철의 모습은 일터에서 순직한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깊이 새겨졌다.

하기에 리일혁은 뜻깊은 결혼식날 신부, 신부의 고마움이 비친 술잔을 그에게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은 화폭이었다. 이런 미덕이 만발하는 공화국을 두고 외국의 한 인사는 《조선은 아름다운 인간향기가 진동하는 사회》라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인 사건, 태어난지 5개월밖에 안되는 딸을 벽에 내동댕이쳐 살해한 사건 등 일본에서 일어나고있는 비인간적이고 말세기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해 쏘아붙여 끝이 없다.

국도의 인간중요사상과 삶에 대한 비판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협잡, 살인과 도박 등 범죄행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것이 바로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사랑과 중의의 판이란 두 현실은 서로 돕고 이끌며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는것을 응면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이 나라와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류성일



만사람의 축하속에 결혼식을 하는 특류영예군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지능발달을 위해

— 조선 어린이 후원 협회에서 —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는것은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2013년에 어린이들을 전문 후원하는 사회단체로 창설된 조선어린이후원협회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 지능발달, 생활관련봉사를 개진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협회에서는 협조지역에 나가 이동진료소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속에서 발병률과 예방접종률향상을 높이기 위한 위생선전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 및 영양, 교육, 생활개선에 관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수요가운데서 이리저리한 요인으로 원만한 해결방안 어려운 대상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협회에서는 또한 협회의 존재와 목적, 사업들을 소개하기 위한 광고활동, 공모활동 등을 진행하고있다.

국제아동절과 어린이건강의 날, 세계보건국의 날들을 맞으며 자선전시회, 어린이건강관련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후원분위기를 높여나가고 있다.

협회에서는 특수한 사명을 지닌 국제적인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과 산하 단체들, 사회단체들과 자신단체들, 재단들, 개별적인사람들과 일로 협력사업도 계획하고 추진하고있다.

우리의 만민 김명철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서기장은 어린이후원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 나라의 기둥같은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김 철



은혜로운 햇빛아래 날과달이 갈수록 더해지는 복된 삶의 너성천가가 울려가는 지금 우리는 창전네거리에 서있다.

창회의 불멸결이 일렁이는 창전네거리에서 서서 사방을 둘러보노라니 북방은 이 나라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정겹게 안겨온다.

육류교를 건너 창전네거리로 들어서는 새형의 무궤도 전차가 시야에 비껴든다. 경제패게 차를 몰아가는 중년의 녀성운전사는 언제인가 TV화면에서 소개된 그 공훈운전사가 아닌지.

그에게 거리를 지나던 녀인들이 손을 흔들어서주고 있다.

저 앞의 평양제1백화점을 보니 녀성지배인의 얼굴이 떠오르고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인민극장앞에 서니 북방은 삶을 노래와 춤에 담은 녀성예술인들의 모습이 아련어온다.

그런가하면 웅건한 만수대의 사당에서 나라의 정사를 논하는 녀성대원들의 틈틈한 모습도, 평양학생소년중앙에서 나라의 왕들을 키워가는 녀성교육자들의 모습도 함께 아련어온다.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어 참된 삶을 향유하고있는 이 나라

녀성들의 자랑스러운 군상이 비껴있는 창전네거리이다.

봉건의 끈질긴 세상이 연약한 가슴들을 칭칭 얽매어 놓아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던 어제날의 우리 녀성들이었다.

삼중지의, 녀령중부, 철거지악과 같은 남존녀비의 허다한 질곡에 구속되어 그들의 한생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이 나라 두메산간마을, 어촌마을 그 어디에나 가보시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 조선녀성들이 수놓은 창조와 혁신, 미풍의 열매들은 우리 조국의 위대한, 인간사랑의 송고한 화폭으로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다.

단 몇달동안에 년간계획을 초과수행한 방직공녀의 일본새, 특류영예군인의

안해가 되어 일생을 같이해 나가는 하늘의 이야기, 세계의 하늘들이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처지를 버리고 육인들의 강한 모습,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녀성초음속추진비행사들의 이야기...

한말기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하여도 태양의 빛과 열이 있어야 하고 정성껏 가꾸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

이 나라 녀성들의 복된 삶이 높이려나, 아아한 창공높이 솟은 창전거리 고층아파트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문장순의 집도 있다.

평범한 방직공을 혁신자로, 시대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것만도 분에 넘칠진대 새 살림집에 찾아오셔서 친정아버지보다 더 뜨거운 열연의 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어머님의 다스린 인정 그 어디에 비기랴.

이 무상의 행운이 어찌 그

에게만 차려진것이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궁궐같은 로동자합숙에서 세상이 부럽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평범한 녀성로동자들의 모습도 바로 이 거리에서는 다 보인다.

녀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제도도 따라서 평가된다.

오늘날 자본주의세상에서 사는 녀성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 그 더욱 로골화되고 확대되어가고있는 속에 녀성로동자들이 남성로동자들도 싫어하는 생산공정으로 강제로 밀

려나 임금삭감에 산업재해까지 당하고있는것이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 신문은 녀성들이 결혼, 해산, 자식, 가족 등으로 하여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녀성차별현상이 반영되어있는 자본주의의 불치의 병이라고 개탄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 녀성들은 람홍색공화국을 자기의 운명으로 튼튼한 감속속에 우리르고있다.

저 람홍색기발이 아니라면, 저 기공이 아니라면 우리 녀성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강대하고 존엄높은 나라를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손길이 있어 지난날 불행하고 수난많은 이 나라 녀인들이 오늘 높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궁지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세기의 하늘높이 더욱 힘차게 날듯 공화국과 함께 이 나라 녀성들은 나라의 꽃들로 더욱 활짝 피어날것이다.

조선의 북방은 녀성들을 축복하여 하늘에는 따사로운 햇빛 넘치고 대동강 맑은 물은 노래하며 흐른다.

최수영

자연에너지의 덕을 본다

공화국에서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성시에서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을 조성하여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현재 평성시에서는 시안의 10여개 단위들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그 덕을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절약해줄 장으로 훌륭히 건설한 미구라지중어장에서는 여러대의 풍력발전기와 태양발전지판을 리용하여 알깨우기로부터 새끼물고기생산, 양수동력과 조명보장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자급자족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얼마전부터 평성시 역전동 주민지구에서는 풍력발전기와 태양발전지판에 의한 2중전원공급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있는데 주민들속에서 그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는 자연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조성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평성자동화기구공장의 기술자들이 직접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함으로써 여러 단위들과 주민들속에서 자연에너지를 적

이미전부터 연구사들의 창작적사색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특성으로부터 국가전력망과 발전발전기에 의거하는 2중전력공급체계가 서있었다. 하지만 이곳 설계연구소에서는 자연에너지를 리용하면 자체의 힘으로도 언제든지 기관경영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해결할수 있는것을 어떻게 국가전력망에만

의지하며 또 연유를 소비하는 발전발전기에만 매여달라졌는가고 하면서 실리에 맞게 박막태양발전지판들을 설치하고 자체로 전력을 생산리용하고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으로는 연구소의 수많은 컴퓨터들을 모두 사용할수 있고 교차생산조직만 잘하면 전력소비가 큰 설비도 얼마든지 가

동시킬수 있는것으로 하여 기관경영관리에 큰 실리를 얻고있다.

황해남도 청단군 심평농장에서 태양발전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덕을 토틀히 보고있다.

이곳 농장에서는 태양발전지판들을 합리적인 장소들에 설치하여 요구되는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농작물의 생육과 병해충방생상태 등을 항시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맞는 기술적대책을 제때에 세울수 있게 포진마다에 설치한 감시카메라들과 품종배치, 토양분석,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한 영농기술공정설계를 담당수행하고 있는 컴퓨터들에 공급되고있다.

또한 작업반들까지 구속된 땅을 통한 화상피해와 농산물 수확 등 부문별농업과학기술성과자료들에 대한 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사업도 태양발전지판을 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보장하고있다.

이 단위를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서나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튼튼하게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진 혁



평성자동화기구공장에서 풍력발전기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얼마전 제34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되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해나가기 위한 시안의 과학자, 기술자들, 각계층 근로자들의 높은 열의속에 축전은 련일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축전은 11개 분과로 나뉘어 과학기술성과발표회, 과학기술성과전시경연, 새 기술교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300여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출품되었다. 축전에는 자체의 원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이룩한 우수한 과학기술성과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영과학연구소에서 출품한 《기계식무전동촬영장치》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제작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평양가방공장에서 내놓은 《부각인쇄용체잉크》 제안은 국내에 흔한 원료로 《소나무》 책

가방상표를 인쇄함으로써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한덕수평양형공업종합대학에서 내놓은 《향수주입 및 밀봉공정의 흐름선화》도 향수의 질을 높이고 공정전반의 통합조종을 실현하게 한 가치있는 성과였다.

축전에는 연구소들과 공장, 기업소 등의 책임일꾼들이 내놓은 연구성과들도 적지 않았다.

현봉철 사동구역가동사업소 소장인 연구원 《전기적약형가동전압안정단》은 수입산가동동에 비하여 적은 전기를 가지고 밝기를 보장하면서 전압을 안정시켜 가동동의 수명을 높이고

기를 절약하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향로 및 화장품공학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과학기술성과인 《나무모은실의 류형과 크기 선정》은 태양열을 최대한 리용하여 지역별특성에 맞게 2회전나무모은실간을 보장할수 있는 온실의 류형과 크기를 선정해주는것으로 하여 종전보다 많은 자금을 절약하게 하였다고 한다.

우리와 만난 현봉철 사동구역가동사업소 소장은 《과학기술문제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하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일꾼들이 앞장서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또한 축전에는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경공업제품, 의약품들도 출품되었다.

향로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에서 내놓은 세수크림, 살결물, 향수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들, 은하계약공장에서 생산한 콘살주사약, 하당2종합진료소에서 출품한 발독관절염주사약, 령군봉부역회사에서 출품한 레이저치료가 등은 국내에 흔한 원료와 약재들을 리용하여 만든것으로 하여 인기를 모았다.

돌아볼수록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추동하는 데 이바지하는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어서 더없이 소중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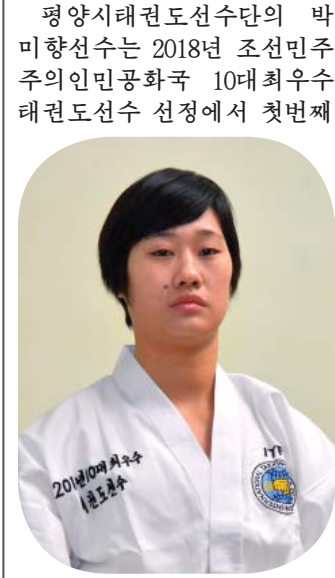
제34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력갱생에 기초한 과학기술열풍의 생활력을 다시금 느끼게 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태권도 선수 (1)

1. 평양시태권도선수단 선수 박미향



2.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 김금정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박미향선수는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태권도선수 선정에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수년간의 선수생활기간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노력을 바쳐 아시아최강자의 지위에 오른 그는 지난해 전국소년태권도대항경기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참가한 국제경기들에서 20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수십개의 메달과 함께 2차에 걸쳐 개인기술상을 수여받았다.

인체체육인인 그는 2014년 부터 이번까지 다섯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태권도선수로 선정되었다.

김금정선수는 지난해 몽골에서 진행된 제9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개인맞서기 62kg급경기에서 우승하였다. 특히 완력형의 까자호스판전승와의 경기에서 그는 부단한 이동과 재빠른 손발 공격을 결합시키면서 상대방에게 송물뜰 림을 주지 않고 연속적인 공격을 틀어막아 좋은 인상을 남겼다. 여러 세부종목경기에서도 그는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생취하였다.

소학교에서 태권도소조원으로 첫발을 댄 그는 그후 중앙체육학원에서 꾸준히 훈련하여 높은 태권도기술을 소유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는 2010년 벨라루스에서 진행된 제9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그는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여러개의 금메달과 함께 개인기술상을 받았다.

2013년 제18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그는 2016년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6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생취하였다.

본사기자 현은경

최근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은하수》 화장품 25종이 유라시아경제동맹의 진품품질분석단위인 중앙과학센터품질검정유한책임회사 실험센터의 품질인증을 받았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해당 나라들에서 합법적이고 우선적인 상품판매와 함께 상품개발과 관련한 각종 협력과 기술교류도 진행할수 있다.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을 기본원료로 한 인삼로화방지크림, 인삼수렴성살결물, 인삼바크림, 보습자외선방지크림, 알로에 보습물크림, 영양살결물 등 모든 제품들이 유라시아경

인기있는 《은하수》 화장품

제품으로 되고있는것이 관심을 끈다고 말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인터넷에 조선의 《은하수》 화장품들을 널리 소개하고 다량구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코레안 케어》유한책임회사 인사들은 공장이 훌륭히 꾸러진데 대하여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창안들을 내놓고 실천에 적극 도입해나가는 기술발전체제가 확립되고 제품생산주기가 부단히 단축되어 《은하수》 화장품들이 명상품, 명

한 지도를 주시고 강력히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체보장대책까지 세워주신 것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은원수님의 은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화장품생산자들의 안목을 띄우시게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도 수많이 보내주시고 현대적이고 능력이 큰 화장품생산기기로 진변되었을 때에는 몸소 공장에 나오시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생산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말씀을 받들고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화장품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원료,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활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첨가제 및 원료생산공정을 새롭게 확립하고 머리칼미용화장품, 겔형, 분무형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머리칼고착제를 생산하는 공정을 일깨워냈다.

공장에서는 입술이 뜨거나 마르는것을 방지하는 보호용

입술연지를 너성용과 남성용으로 개발하였으며 화장전용 색연필생산공정을 꾸러놓고 검은색과 파색, 회색의 눈선연필을 비롯한 분장용화장품들과 민감성피부용크림, 예기피부염치료크림, 주근깨와 검은살을 제거하는 크림 등 피부병치료에 좋은 화장품들도 생산하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의 한 일꾼은 《화장품의 질은 피부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피부가 아름답고 생기를 유지할수 있게 해줄수록 우수한 화장품으로 인정되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개성고려인삼의 독특한 약효와 효능을 리용한 화장품들이 많다》고 하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들이 사용자들속에 호평이 높다고 말하였다.

평천구역에서 사는 김련실녀성은 《《은하수》 화장품들은 그 기능과 치료효과도 높지만 피부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화장품들이 많아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세계적인 이름난 화장품들과 경쟁할수 있는 우수한 화장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은하수》 화장품이 오늘 세계적인 명제들과 당당히 경쟁을 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으로 발전하고있는데는 평양화장품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일신시키기 위하여 개건형성과 마크,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세심

단편소설

철마의 꿈 (5)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이때 왠지떨어떨어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니 《승무원》을 자칭하는 한대의 사나이들이 차관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승객들과 승무원네를 향해 마치 구면지구가 만났듯이 유쾌한 덕담을 건넰다.

《할머니, 차표 봅시다. 옛날엔 이렇게 했지요? 하하》

《어랍소. 이게 몇해만입니까? 우리 기차에 올라본지도 꽤 오랫동안이지?》

《그래, 죽기 전엔 입자네를 더 못 보는가 했지.》

녀인도 백발을 흔들며 자연스럽게 통담을 받아주었다.

《원, 할머니두. 장수하시면 오늘처럼 좋은 날을 보게 된답니다.》

《승무원》들은 차관의 분위기를 대변에 화락하게 만들어 앞으로 나갔다.

《할머니, 평양까지 무사히 다녀가십시오.》

《그래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

윤수연에게는 어쩔지 녀인이 통을 하는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철길이 북으로 편편히 이어지던 때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감회가 남달랐기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승무원》들이 차관을 나

설부터 기적소리가 울려왔다. 창밖으로 작은 간이역이 언뜻 다가들었다. 간이역사 언덕에서 놀던 아이들이 려차를 향해 조그마한 두손을 흔들어보았다. 윤수연은 금시 어린시절 마음아이들과 함께 철길을 나와 노닐던 자기의 소녀시절 모습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 시절 수연은 강정식이 동네아이들과 나란히 레우우에 올라 오이씨같은 발을 아장아장 옮겨다니며 학교로 오가곤 하였다.

문득 그 시절의 어느날 강정식과 벌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하던 일이 생각났다.

강정식의 건너편에 서서 아득한 지평선 멀리 바라보던 수연은 차승사로 가까이 다가붙고있는 두줄기 레우우를 가리켜보았다.

《저것 봐. 우리도 이제 저기에 가면 서로 만나게 될거야.》

그 말을 들은 강정식이 코방귀를 뀌었다.

《헛. 허튼소리.》

《그게 왜 허튼소리야?》

《철길은 말야, 평행선이거든. 평행선은 영영 사귄수 없어.》

강정식은 학교에서 배운 유클리드기하학의 공리까지 들먹이며 뼈기듯 말하였다. 아직은 비유클리드기하학이

란것도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어린 수연에게는 강정식의 그 말이 못내 서운하게 들리었다.

《그러니까 우리 영영 만날수 없다는거지? 하지만 저끝에까지 가느라면 언젠가는...》

그 말에서 수연의 동심을 읽은 강정식은 측은한 마음이 동한듯 빙긋 웃음지며 손을 내밀었다.

《수연, 어서 이 손을 잡아.》

수연은 영문을 모른채 강정식이 내민 손을 맞잡았다.

《네 말이 맞았어. 이렇게 하나씩 평행선도 사귄수 있구나. 저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말이야.》

총각의 팔뚝을 깨닫는 순간 수연의 두눈은 신기한 발길이라도 한듯 반짝 빛을 뿌리었다.

그들은 기차가 올 시간이면 해변에 단따스한 레우우장에 귀를 대고 어딘가 미지의 먼곳으로부터 점점 가까이로 다가오는 차바퀴소리가 귀를 기울여왔다. 달카카리는 금속음이며 레우우의 진동이 점차 크게 느껴질때면 가슴은 느닷없이 세차게 설레이며 짜릿한 쾌감이 싸이곤 하였다.

드디어 거대한 물체가 대지를 흔들며 다가올 때 장난군아이들은 자기의 손가락만큼 굵은 못을 하나씩 레우우에 올려놓고는 《와—》하고 흠여져가곤 하였다. 그리고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육중한 차바퀴와 레우우이름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곤 하였다.

기차가 먼지바람을 남기고 지나쳐가면 아이들은 철길을 우르르 물켜와 저마음철마의 발굽에 납작해질듯 겁을 집어먹고 좋아하고 떠들어대었다. 그러다 철길감시를 나온 사람에게 들기는 날

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녀인과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온 한세대의 력사가 그 작은 기차표에 얽혀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잠시후 고개를 돌린 녀인은 수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듯 말하였다.

《사실 자네가 찾는 기차표는 우리 어린시절의 추억

이 깃든것세. 나엔겐 생의 한 부분처럼 소중한것이지. 그래서 남에게 보이교싶지 않았어.》

《그랬군요. 그럼 저를 다시 찾은 리유는 무엇입니까?》

녀인은 당당한 물음이라는 듯 흔쾌히 대답해주었다.

《《평양행》 기차가 떠난다는 소식때문이지. 입안내 심정을 다 몰라. 난 한생 그 소식을 기다려 산 늙은이세.》

어제 밤 《평양행》 기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떠들었던 녀인은 자기를 찾아왔던 녀기자를 떠올리었다. 그를 만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기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고싶었다.

녀인은 품속에서 색깔은 손수건을 꺼내어 한겹두겹조심히 풀어헤쳐었다. 그리다 그속에서 자그마한 기차표 하나가 나왔다. 어제 수연을 실망시켰던 옛 기차표였다.

《그 윤정수란 사람에게 형이 있었어. 그분은 바로 나의 첫 스승이었지. 그리고 나에게 이 기차표를 준 사람이기도 했어.》

순간 수연의 가슴은 몹시 울렁이였다.

차바퀴소리는 달그락거리며 끊임없이 울리는데 녀인의 이야기는 아스라히 멀어져간 옛 시절을 더듬으며 이어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은 한 사나이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굳세고 소박한 로동자풍의 사나이였다.

이 깃든것세. 나엔겐 생의 한 부분처럼 소중한것이지. 그래서 남에게 보이교싶지 않았어.》

《그랬군요. 그럼 저를 다시 찾은 리유는 무엇입니까?》

녀인은 당당한 물음이라는 듯 흔쾌히 대답해주었다.

《《평양행》 기차가 떠난다는 소식때문이지. 입안내 심정을 다 몰라. 난 한생 그 소식을 기다려 산 늙은이세.》

어제 밤 《평양행》 기차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떠들었던 녀인은 자기를 찾아왔던 녀기자를 떠올리었다. 그를 만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기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고싶었다.

녀인은 품속에서 색깔은 손수건을 꺼내어 한겹두겹조심히 풀어헤쳐었다. 그리다 그속에서 자그마한 기차표 하나가 나왔다. 어제 수연을 실망시켰던 옛 기차표였다.

《그 윤정수란 사람에게 형이 있었어. 그분은 바로 나의 첫 스승이었지. 그리고 나에게 이 기차표를 준 사람이기도 했어.》

순간 수연의 가슴은 몹시 울렁이였다.

차바퀴소리는 달그락거리며 끊임없이 울리는데 녀인의 이야기는 아스라히 멀어져간 옛 시절을 더듬으며 이어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연은 한 사나이의 형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굳세고 소박한 로동자풍의 사나이였다.

몸단련에 좋은 정구

정구는 몸단련에 좋은 체육종목이다.

우선 정구는 사람들에게 기민한 동작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키워준다.

정구는 경기장중심에 공을 가로 건너치고 채로 물건을 쳐서 넘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르는 구기종목이다.

처널기, 임의의 위치에서 오는 빠른 이동, 받아치기 등의 동작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균형감각과 운동직각이 발달된다.

그리고 경기장구역에 대한 지각, 이동방향과 위

치, 진출수법에 대한 판단, 예측 등과 같은 지능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달시키기때문에 기민한 동작과 순간적인 판단력을 키워준다.

또한 정구는 속도와 힘, 인내력을 높여주고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특히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구를 치면 몸을 단련할수 있을뿐아니라 정신상태도 상쾌해진다. 정구를 치기 전에 준비운동을 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피장파장

옛날 어느 한 사도가 고을을 순시하다가 평리하고 말때간 또한 그지없다고 소문난 소녀에게 말을 걸어 보았다.

《애야, 저 물위에 떠있는 오리는 실리를 가도 오리, 백리를 가도 오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글세물시다. 할미새는 갓 깨어나도 할미새, 오래살아도 할미새라고 하는것과 같소이다.》

사도는 머리를 끄덕이며 또 물었다.

《새장구는 새것도 새장구, 험어도 새장구라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리치냐?》

《그것은 북이 동쪽에 놓아도 북, 서쪽에 놓아도 북이 되는것과 같은 리치물시다.》

그러자 사도가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비를 걸어왔다.

《창으로 창문을 찢어서 난 구멍을 창구멍(창으로 난 구멍)이라고 하나, 창구멍(창문구멍)이라고 하나?》

《그럼 눈오는 날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눈물(감정의 분비물)이오이까, 눈물(눈이 녹은 물)이오이까?》

《...》